

# 역사서술에서 시각이미지의 역할과 편집디자인

Editorial Design and The Role of Visuality in the Historical Descriptions

김영철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시각디자인과

**Kim Young-Chul**

Majored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Hongik University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범위 및 방법

## 2. 역사서술의 이론적 고찰

- 2.1.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 2.2. 역사서술의 입장과 한계
- 2.3. 매스미디어 시대의 역사서술

## 3. 역사서술에서 시각이미지의 종류와 역할

- 3.1. 시각이미지의 상징체계와 기호체계
- 3.2. 사진과 시각서술
- 3.3. 복원(復元)과 시각서술
- 3.4. 극화(劇化)된 재현(再現)과 시각서술
- 3.5. 정보그래픽과 시각서술
- 3.6. 만화와 시각서술

## 4. 서술주체의 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

- 4.1. 실증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
- 4.2. 입장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

## 5. 결 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모든 디자인행위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역사서를 만드는 일은 각 장르를 넘어 역사에 대한 인식과 행위의 진지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역사서술에서 시각이미지의 역할과 편집디자인’이라는 논제는 ‘역사서술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서부터 그동안 일반적으로 역사서술이 역사가에 의해서만 또는 문자중심으로 서술된 것만을 역사서술이라 인식되어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오늘날 역사서술은 공인된 역사가를 넘어 역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있다. 또한 역사서술에 사용되는 시각이미지는 문자중심 서술의 참조기능차원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이미지의 문법체계, 즉 상징체계·기호체계에 의해 구성된다. 실제로 역사서에 등장하는 유적·유물·사건사진, 복원(復元)된 모형이나 그림, 극화(劇化)된 재현(再現)그림, 정보그래픽, 만화 등은 그 자체가 역사를 기록하고 서술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자와 시각이미지를 종합하는 편집디자인은 역사해석과 함께, 서술된 문자와 시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해석하는 역사서술의 한 행위이다.

#### 주제어

역사서술, 시각서술, 서술주체

#### Abstract

All acts of design will be like that, but especially the act to design a historic book is an interdisciplinary process which starts from recognizing history and being serious about the act by itself. The topic <Editorial Design and The Role of Visuality in the Historical Descriptions> starts from the question ‘What is a historical description?’ We try to raise the problem that until now only descriptions written by historians or just ‘written’ descriptions were accepted as historical descriptions in general. Nowadays historical descriptions are extended to what people from all kinds of fields have predicated, overcoming what officially recognized historians have written. Also, the visual images used in historical descriptions are not only derivatives of text-based descriptions but constructed as symbolic and emblematic systems. Actually, the photographs of historic relics, visually reconstructed models or pictures, revivals of sceneries in drama or plays, informative graphic magazines, cartoons are by themselves methods of documenting and describing history. Furthermore, editing design, integrating the written letters and visual images together, involves a similar process of actively interpreting written text and visual image such as the historian when he chooses historical material. Therefore, editing design should also be seen as an act of historical descriptions.

#### Keyword

historical description, visual description, subject of descriptions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서점에 가면 수많은 역사관련 서적들이 출간되어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 한국의 역사서는 단순히 문자로만 서술된 것 보다는 문자와 더불어 시각이미지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역사를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있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살펴보면 시각이미지가 단순히 문자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이미지 자체가 서술의 중요 요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현재 역사서에 등장하는 시각이미지들의 종류와 이러한 시각이미지들이 역사서술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역사서는 서술주체의 실증적 해석, 입장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를 종합하는 편집디자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의 표현방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자와 시각이미지를 해석하는 서술주체의 입장과 방향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역사서 편집디자인의 다양한 형식을 비교 연구하여 시각적 역사서술의 다양한 지점을 살펴본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대중역사서에 한정하며, 특히 시각이미지가 적극적으로 사용된 국내·외 역사서가 연구대상 범위에 속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관련 논문 및 서적을 통해 역사서술의 목적과 서술주체의 입장, 그리고 역사서술의 한계 등을 살펴본다. 또한 매스미디어가 작용한 역사서술에 있어서 서술주체의 문체와 서술방식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다음으로 역사서술에서 시각이미지의 종류와 역할, 그에 따른 시각적 서술방식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역사서 편집디자인 결과물의 사례를 통해 서술주체의 해석에 따라 결과물들이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 2. 역사서술의 이론적 고찰

### 2.1.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19세기는 사실들(facts)을 숭배한 시대였다. 1830년대에 독일의 역사가 랑케(1795-1885)는 역사는 단지 '그것은 실제로 어떠한가(wie es eigentlich gewesen)'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의 종교화, 도덕주의에 대해 거부했다. 이 랑케의 역사관은 독일과 영국의 역사가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역사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역사를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은 보다 객관적인 입장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상은 과학으로서 역사를 주장한 실증주의자들(positivists)에 의해 더욱 강조되어 영향력을 발휘했다. 즉 우선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실증사학을 말한다.

이러한 역사관은 영국의 경험주의 전통과 일치하는데 경험주의 인식론은 주체와 객체의 완전한 분리를 전제한다. 사실들은 감각적인 인상과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관찰자에게 부딪혀 들어오며 또한 그의 의식과는 독립되어 있다고 말한다. 경험주의 학파의 경향을 보여주는 업적물인 옥스퍼드 영어 중사전(中辭典)은 사실들을 '결론과는 다른 경험자료(datum of experience as distinct from conclusions)'라고 정의함으로써 그 두 과정을 명백히 분리시키고 있다. 역사는 확인된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것이다.<sup>1)</sup>

그러나 사실을 고증하고 복원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증주의적인 역사와 과거 그 자체에 매몰되는 복고취미적인 역사를 비판한 E.H.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의 '사실들'은 역사가들이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역사가는 사실의 잠정적인 선택과 그 선택을 이끌어준 잠정적인 해석(그것이 그 자신에 의한 것이건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건 간에)에서 출발한다. 그가 연구하는 동안 사실의 해석 그리고 사실의 선택 및 정돈 그 두 가지는 이러저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미묘한 그리고 아마도 얼마간 의식되지 못하는 변화들을 겪는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에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상호관계도 역시 포함되는데, 왜냐하면 역사는 현재의 일부이며 사실은 과거에 속하기 때문이다. 역사가와 역사의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자신의 사실을 가지지 못한 역사는 뿌리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다. 따라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a continuous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historian and his fact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라는 것이다.<sup>2)</sup>

1)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1997 p.18.

2)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1997 p.50.

## 2.2. 역사서술의 입장과 한계

포스트모던시대 혹은 오늘날 역사학에 의하면 E.H 카의 역사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이 말에도 체통을 건다. 이를테면 ‘현재와 과거의 대화’ 이 말에는 절대 전제가 깔려 있다. 현재와 과거가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양자의 실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무엇보다 ‘대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실재성 여부부터 답해보면 데카르트(R. Descartes)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의 명제가 입증하고 있듯이 인식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는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회의에 의해서도 결코 부정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실재성에 관한 한 카의 가정은 참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경우는 어떠한가? 현재의 경우와 달리 대답은 부정적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것, 이미 끝나버린 것들의 총체이다. 물론 과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과거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했던 것. 바로 이것이 과거이다.<sup>3)</sup>

따라서 오늘날 역사학은 카가 말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일 수 없다고 말한다. 이유는 과거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역사란 엄밀히 말해 현재에 존재하는 역사가 현재에 남아 있는 과거의 흔적을 토대 삼아 죽은 과거를 되살려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란 현재와 과거 간의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현재와 현재사이의 상호작용’이다.

포스트모던시대 혹은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이에 덧붙여 말하길 역사가와 자료 사이의 관계는 주고받는 공평함일 수 없다고 말한다. 공평해 보이면서도 실상은 불공평한 관계, 주고받음의 대화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역사가의 의해 주도되는 말 나눔의 관계. 자료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자료를 뛰어넘으며, 나아가 자료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관계라 말한다.<sup>4)</sup>

## 2.3. 매스미디어 시대의 역사서술

오늘날 매스미디어 시대의 역사서술이라 하면 역사가들의 학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소설, 사진, 영화, 박물관, 서적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역사는 소개되어 진다. 물론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역사가 서술된다 할지라도 그 바탕은 역사가

들에 의해 연구된 성과에 기초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성격으로 들어오면 일정부분 혹은 전면적 역사적 사실의 왜곡으로 나타나곤 한다. 이것은 앞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서술이나, 역사가의 선택과 입장에 의한 서술이나의 논쟁만큼이나 대중적 기호와 호응의 상관관계에 따라 역사는 달리 서술된다. 여기에는 앞서 논한바 있는 ‘역사서술의 입장과 한계’라는 차원의 연장선에 있다. 즉 역사는 과거 혹은 현재의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인식하고 요구하는 해석과도 관련되어 있다.

물론 소설, 영화 등은 오락적 차원으로 인정하고 역사적 진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예컨대 “몇 세대에 걸쳐 미국인은(다른 나라 사람들 역시) 할리우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에 깔린 화려한 색안경을 통해 남북전쟁의 역사를 인식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사건을 상기할 때 올리버 스톤(Oliver Stone) 감독의 영화 <JFK>의 영향을 받는다. 대중문화는 특정한 사건이나 이미지를 되풀이하여 다룸으로써 역사의 특정한 부분을 매우 친숙하고 또렷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반면, 다른 부분은 낯설고 잘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sup>5)</sup>

이러한 역사서술이 어떻게 제작되고 강화되며 변용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과 미적 경제학 모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소설가나 출판업자, 영화작가 같은 사람들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선택할 때 각자가 활동하는 시장의 경제원칙에 얽매인다. 문화자본주의라고 할 경쟁세계에서는 그 나름대로 광범위한 다수의 독자층이나 관객이 구매할 만한 작품이 제작되므로,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제작자 쪽에서 어떻게 예측하는가가 영향력을 미치기 쉽다.

그러므로 매스미디어 시대에 역사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역사적 서술을 어떻게 좌우하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즉 9.11테러 이후 이라크 전쟁 발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는 점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는가, 예컨대 CNN뉴스인가, 알자지라뉴스인가에서부터 사진집인가, TV다큐멘터리인가, 극장영화인가, 인터넷 블로그인가에 따라 이해의 내용이 달라진다.

근대 역사학의 융성이 문자로 쓰인 서술의 권위

3) 김현식, 『포스트모던 시대의 역사란 무엇인가』, 휴머니스트, 2006 p.50.

4) 같은 책, 2006 p.60.

5) 테사 모리스 스킴키, 『우리 안의 과거』, 휴머니스트, 2006 p.33.

및 논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한 헤드슨 화이트(Hayden White)는 오늘날에는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만화, 인터넷 등 기존의 서술형식을 따르지 않는 미디어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달될 기회가 늘고 있다는 점이 매스미디어 시대에 역사서술의 한계를 특히나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화이트는 홀로코스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등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 자체가 역사서술의 가능성을 압도하고 남을 만큼 무시무시하여 감히 묘사할 수 없는 성질을 띤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래서 “근대 탈공업화시대의 ‘사건’은 이전 세대가 상상한 어떠한 사건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사진이나 비디오에 의한 기억이 너무 흘러넘쳐서 어떤 기억도 단일한 ‘객관적인’ 이야기의 소재로서 작용할 수 없다.”<sup>6)</sup> 라고 말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가까운 과거의 주요한 사건을 묘사하는 것으로, 서술을 버리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반-서술적 비-이야기(anti-narrative non-story)’를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한다.

### 3. 역사서술에서 시각이미지의 종류와 역할

앞장에서 우리는 역사서술의 목적과 역사가들의 역사서술의 입장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매스미디어 시대의 역사서술에 있어서 헤이든 화이트가 말한 “서술을 버리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반-서술적 비-이야기(anti-narrative non-story)’를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점은 그만큼 관점과 입장에 따라 역사에 관한 객관적 해석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며, 당분간 역사의 해석을 유보하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오늘날 역사서술이 문자로 쓰인 서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역사서술에 사용된 시각이미지가 문자로 쓰인 서술의 참조 이미지 정도로만 사용되는 경우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반-서술적 비-이야기’라는 말이 단지 사료의 나열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긴 어렵다. 이제 역사서술은 공인된 역사가를 넘어 역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있다. 여기에서 랭케와 카가 말한 역사를 대하는 태도와 입장을 중요하게 참조해야겠지만 어쨌든 역사서술의 주체와 서술방식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6) Hayden White, 1996. 『The Modernist Event』, In *The Persistence of History : Cinema, Television and the Modern Event*. Ed. Vivian Sobchack. New York and London : Routledge.

본 장에서는 시각이미지의 종류와 각각의 시각이미지가 역사서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중역사서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시각이미지에 관한 체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각론에 들어가겠다.

### 3.1. 시각이미지의 상징체계와 기호체계

시각이미지는 하나의 상징체계이자 기호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상징과 기호체계는 문자처럼 역사적, 사회적 성질을 담은 문법적 체계가 있다. 따라서 시각이미지 역시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서술된다. 상징체계와 기호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성질을 갖고 있다.

상징체계는 기호가 뜻하는 바가 정해진 체계이다. 표현이 내용과 일대일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체계이다. 십자가라는 표현으로부터 기독교라는 내용을, 하트 모양의 표현으로부터 사랑이나 심장의 의미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표현은 오랜 역사를 통해 내용이 고정된 기호이다.

반면, 기호체계라는 것은 분석적으로 파악된 조작적 개념이며 조작적인 정의에 의해 기호의 뜻하는 바가 정해지지 않은 체계이다. 표현과 내용이 일대일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역사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체계이기 때문에 기능은 할지언정 의미는 자의적으로 구성된다. 십자가나 하트와 달리, 네모, 세모, 선, 점, 사람 등은 역사적으로 약속된 의미가 없다. 이 기호성은 사람과 시간에 의해 보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공시대의 권력만이 의사소통의 기능을 보증한다. 규칙을 정해 일정한 표현에 일정한 내용을 합치면 되기 때문이다.<sup>7)</sup>

실제로 역사서술에서 시각이미지를 통한 서술은 상징체계를 목표로 한 기호체계로 서술된다. 역사서술에서 기호체계는 하나의 사실적 사건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시작되는데, 주로는 당시의 사진 혹은 유물, 유적 등의 이미지로부터 그 관계를 논리적 혹은 감정으로 유도하며 이어간다. 이러한 하나의 사건 혹은 진술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반복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상징체계로 자리를 잡게 된다.

### 3.2. 사진과 시각서술

역사서술을 위한 시각이미지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유적·유물·사건 등을 소개하는 사진이다. 랭케가 말한 바처럼 ‘그것은 실제로 어땠는가’를 대

7) 신항식, 『디자인 이해의 기초이론』, 나남출판, 2005 p.79.

변하는 시각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적·유물을 소개하는 사진 그 자체가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으며,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서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역사서술에서 사진은 가장 실제와 실물에 가깝게 표현되어야 하며, 또한 재현된 사진은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된다. 이러한 인식은 사진이 현장과 사물을 가장 현실에 가깝게 복제하고 있다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서들에 재현된 사건 및 유적·유물의 사진이 현장의 사실과 진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예컨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유물의 형태와 색상 등의 재현에 있어서 촬영자의 입장과 시각, 그리고 환경조건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표현되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고려청자의 색상에 관한 점을 들어 설명해 보겠다.

보통 고려청자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 “저 오묘하고 신비로운 고려청자의 비취색을 보면…” 문장이 상투적이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청자의 색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청자의 시각자료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출판된 책마다 청자의 색깔은 다르다. 어떤 책에는 녹색이 많이 표현되어 있고, 어떤 책에서는 청색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색상차이의 기준도 없이 모두 제각각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실물에 가깝게 표현된 비취색일까? 어떤 경우에는 색상은 고사하고 형태의 왜곡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물론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에 가서 실물을 확인해 보면 보다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청자에 관한 시각서술은 이미 객관적 서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철저히 측정된 색상의 데이터 값으로 동일하게 재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인쇄 상황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균등하게 재현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앞서 역사서술의 입장과 한계에서도 밝힌바 ‘역사란 현재와 현재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는 말이 더 주의 깊게 들린다. 사진을 통한 청자의 역사적 진술은 과거를 똑같이 재현해 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각이미지의 기호체계에 의해 조작된 이미지이다. 이 말은 역사서술 주체(저자, 디자이너, 사진가 등)들과 독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청자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비취색을 서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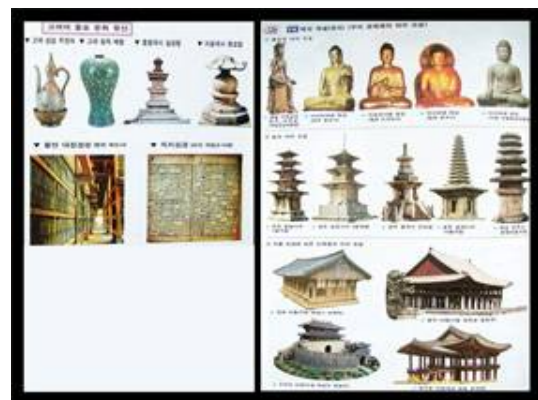
청자에 관한 시각적 서술은 현대의 시각으로 오묘함을 세련됨으로, 신비로움을 고급스러움으로 재해석된다. 따라서 고려청자의 비취색은 원래의 객관적 색상이 아니라 현재의 감각으로 만들어진 색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비취색’이 현실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고려청자의 색은 다양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청자의 여러 색은 흙의 종류, 유약의 성분, 가마에서 불 때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색을 띤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사진을 통한 시각적 서술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시각이미지 중에서 사진은 다른 종류의 시각이미지들보다 사실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점 때문에 사진을 통한 시각적 서술이 역사서술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진이라는 매체의 인식이 역사적 사실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사진을 통한 시각서술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만일 이것이 무시된다면 역사적 사실의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도 있다.

예컨대 [그림1]에 예시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고려의 중요 문화유산’이라는 페이지에서 역사적 사실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제한된 페이지 안에 고려의 중요 문화유산을 보다 많이 보여주어야 할 이유가 있었겠지만, 좌측의 고려청자와 탑이 같은 크기로 재현되어 있고, 오른쪽 불상들의 크기 역시 실제 크기와는 다르게 동일한 크기로 기술되어 있다. 심지어 문자로도 크기를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의 사실자체가 왜곡된 것이다. 설명실물크기를 아래에 기명하며 크기의 오해를 줄였다 하여도 시각서술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자중심의 서술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시각서술에 대해선 거의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진을 통한 시각서술은 문자서술만큼이나 시각서술체계의 구체성을 가지고 기술되어야 한다.



[그림1]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고려의 중요 문화유산’

### 3.3. 복원과 시각서술

역사서술에서 시각이미지의 종류로 복원(復元)이 미지가 있다. 이는 특정시대의 유물이나 건축물, 의복, 인물 등의 개별 대상에 대한 정보, 또는 현재는 사물 전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나 모습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체모형, 사실적 일러스트레이션을 말한다. 대상의 형태를 양감이나 음영 모두 세심하게 표현하여 실제와 가장 비슷하도록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이 가진 모든 정보와 가치성을 극대화 한다.

그런데 복원과 관련된 시각이미지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황은 나름의 철저한 고증을 거친다고는 하나 새로운 발견으로 인한 시각이미지를 침삭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대부분 일반 독자들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시각이미지가 하나의 중요한 정보이자 기록방식이라는 점에서 마치 원고의 교정 교열을 보듯 지속적인 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이러한 복원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바 원래의 온전한 복원이란 불가능하다. 단지 우리는 고증이라는 방식의 차원에서 객관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진처럼 복원 역시도 지금의 색상과 미감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복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실제 진행했던 ‘남포시 수산리 고분벽화(5세기)’복원작업을 통해서도 경험한바 현재 보존된 색상과 남아있는 흔적의 드로잉을 연결하는 작업에서 지워진 각 부분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과 유추는 달랐다. 그러나 이렇게 복원된 이미지는 문자서술 이상의 역사연구의 구체적 가치를 갖는다.



[그림2] 남포시 수산리 고분벽화(5세기)  
위 사진은 부식된 현재 상태이고, 아래는 훼손된 부분을 수정 복원한 것이다<sup>8)</sup>

8) 『한국생활사박물관03-고구려생활관』, 사계절, 2001 p.46.

### 3.4. 극화된 재현과 시각서술

극적으로 재현한 그림 역시 시각적 서술의 한 방법이자 종류이다. 역사의 한 상황과 사건의 재현을 통해 역사의 현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이는 주로 상황의 분위기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며, 전체 구성에서 생동감과 흥미를 유발시킨다. 책의 구성에서 주로 도입부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극화된 재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 재현의 방식이 있는데, 크게 ‘사실적 재현’과 ‘기호적 재현’으로 나뉜다. 사실적 재현은 상황을 그대로 투시하여 한 시점의 장면으로만 구성하는 방식을 말하며, 기호적 재현은 주제나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 구성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기호적 재현은 필요에 따라 생략과 강조가 두드러진다.

[그림3]에 예시된 두 가지 그림은 같은 선사시대를 다루되 재현의 방법이 다른 예이다. 위쪽은 객관적 사료와 상상을 통해 보다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면, 아래쪽은 “만일 선사인이 지금, 우리를 바라본다면...”이라는 서술의 조건을 통해 당시 환경조건과는 관계없이 기호적 재현을 하고 있다.



[그림3] 상 : 사실적 재현<sup>9)</sup> / 하 : 기호적 재현<sup>10)</sup>

그런데 극화된 재현을 통한 역사서술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재현의 가치성’이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콜링우드(Collingwood, R)가 “역사가는 사실의 선택과 해석을 지배한다”<sup>11)</sup>고 말한 것처럼 어떠한 사건을 선택해서 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것은 역사가의 취향에 그치는 것이

9) 『한국생활사박물관01-선사생활관』, 사계절, 2001 p.10.  
10) 『Cro-Magnon & Nous』, Mango Jeunesse, 2000, p.4.  
11) M. Oakeshott, *Experience and Its Modes*, 1933, p.99.



아니라 상대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가치의미에 있다 하겠다. 이를테면 대중역사서에서는 한 역사적 현장을 재현함에 있어서 교육 및 사회적 효용성이 높을 때 재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극화된 형식의 시각이미지 표현에서는 복원과는 달리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차원이기보다는 상상력과 역사적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는 보다 심원한 분위기로 그려져야 한다. 역사를 왜곡하여 포장하자는 말이 아니라, 시각적 관심의 유도과 정보를 보다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역사는 당연히 추체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동시에 사고해야 한다. “역사가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행위의 배후에 있는 생각을 ‘상상적으로 이해(imaginative understanding)’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콜링우드의 말처럼 말이다.

### 3.5. 정보그래픽과 시각서술

정보그래픽이란 정보를 선택하고 새로운 형태로 조직하여 특정의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서 지도, 연표, 사진, 그래프, 비교도, 발전 단계도 등을 말한다. 역사서술에서 정보그래픽은 매우 중요한 시각이미지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그래픽을 시각이미지라기보다는 문자텍스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정보그래픽은 서술지면의 분위기와 활용 등에서 시각이미지와 동일함 또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단지 단순한 도표를 넘어 일러스트레이션과 적극적 결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 혹은 진술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4]는 정보그래픽이 주가 되어 서술된 타임사가 출판한 대표적 역사서이다. 인문지리 정보그래픽이라는 시각이미지가 중심이 되어 주된 정보를 전달하며, 역사적 사건 및 상황의 관계성을 압축하여 구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인문지리 정보그래픽에서는 주로 주관적 표현보다는 통계와 수치 등의 비교적 객관적 데이터 자료에 의해 시각적으로 서술한다. 여기서 문자서술은 시각서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픽 표현 하나하나의 역사서술 자체가 된다.

### 3.6. 만화와 시각서술

만화와 카툰은 다시 전문적으로 나뉘질 수 있지만, 역사서술로서의 공통점은 [그림5]에서처럼 문자와 시각이미지가 서로 융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문자서술과 시각서술이 구분되지 않고 독자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저술가의 역사에 대한 입장과 사건의 선택, 그리고 해석, 시각이미지의 전개가 매우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카툰의 경우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압축하여 날카롭게 지적한다는 점에서 장편서술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림4] 인문지리 정보그래픽<sup>12)</sup>



[그림5] 역사만화<sup>13)</sup>

## 4. 서술주체의 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

하나의 역사책이 나오려면 마지막 단계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문자와 시각이미지가 종합된 편집디자인이다. 편집디자인이란 일반적으로 주어진 서술된 문자와 시각이미지를 가지고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자와 시각이미지를 단순 나열하는 차원이라면 굳이 편집디자인의 구성입장과 방법을 논할

12) 『The Times History of The World』, Times Books, 1999

13) 『테마한국사22-임진왜란』, 한울교육, 2004, p.40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자와 시각이미지가 일관된 관점과 문자와 시각이미지의 관계가 잘 정리된 종합적 구성이 되려면 앞서 역사가의 사료선택과 입장에서처럼 편집디자이너 역시 서술된 문자와 시각이미지를 해석하여 지면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구성에서부터 한 면 한 면의 세부구성에까지 섬세한 조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술적 완성도를 갖는다.

다음은 역사서 편집디자인에 있어서 서술주체의 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의 대표적 두 가지 유형이다.

#### 4.1. 실증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

실증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이란 역사서술입장에서 랭케로부터 시작된 실증사학에 따른 편집구성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논리적 전개방식을 지향하며, 시각이미지는 사실(fact) 사진자료와 사실적 복원 및 재현을 바탕으로 구성 전개된다. 비교적 시각이미지를 재가공하거나, 주관적으로 해석한 시각이미지는 사용치 않으며, 시각이미지가 서술된 글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최대한 견제한다. 따라서 실증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주관적 해석이 최대한 자제되고, 시각이미지에 있어서나 레이아웃 구성방식에 있어서도 세분화된 전문가들의 고증과 절차적 동의가 필수이다.

[그림6, 7]에서처럼 실증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은 사실자료를 근거한 역사서술이며, 주로 종류 및 성격분류를 통한 연대기적 순서에 의해 구성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문자서술은 되도록 가공된 이야기는 최대한 억제되어 기술된다.



[그림6] 실증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종류 및 성격분류 구성<sup>14)</sup>



14) 『한국생활사박물관10-조선생활관』,사계절, 2003 p98

[그림7] 실증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연대기적 구성<sup>15)</sup>

#### 4.2. 입장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

반면 서술주체의 입장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은 보다 주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물론 객관적으로 검증된 역사적 상황을 무시한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식의 역사소설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역사서술이 ‘현재와 현재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데 더 주목하여 서술주체의 현재적 해석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에서부터 서술이 시작되며, 시각이미지 역시 역사적 사진자료와 당대의 사실적 복원 보다는 기호적 재현에 비중을 둔 시각적 서술이 이뤄진다.

구성방식에 있어서도 통사나 연대기적 구성보다는 주제나 테마 중심구성으로 이뤄지며, 문자서술도 논술중심보다는 문학적 서술, 인터뷰, 질문과 답변 등의 다양한 형식을 구사한다.

[그림8]은 입장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의 한 유형으로 베토벤이라는 인물을 실증사실을 통해 설명하기 보다는 베토벤이라는 음악가의 역사적 의미를 현재적 이해의 코드로 서술하고 있다. 베토벤의 머리에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헤드셋을 씌우고, 팝아트적 원색적 색상으로 베토벤이라는 인물의 성격과 당대의 음악적 천재성을 설명하고 있다. 문자서술도 논술중심 보다는 문학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림8] 입장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sup>16)</sup>

[그림9]는 고려시대 ‘귀주성 전투’를 서술한 편집디자인이다. 귀주성 전투의 치열함을 현재의 입장에서 인터뷰, 탐방 형식으로 재구성한 편집디자인이다. 실제로 과거로 가서 당시의 병사와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가상으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사실을 실증적으로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15) 『20th Century a Visual History』,DK, 2000

16) 『Beethoven & Son Temps』, Mango Jeunesse, 2000

전쟁을 통해 파생되는 현재적 문제에 더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비되는 차원으로 [그림10]은 귀주성 전투를 실증해석에 기초에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림9] 입장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sup>17)</sup>



(그림10) 실증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sup>18)</sup>

## 5. 결론

지금까지 역사서술의 이론적 고찰, 역사서술에서 시각이미지의 종류와 역할 그리고 문자서술과 시각서술을 종합하는 편집디자인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날 역사서술은 역사가에 의해서만 또는 문자중심으로 서술된 것만을 역사서술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문자서술만큼이나 시각서술의 종류와 역할의 구체적 이해 없이는 보다 온전한 형태의 역사서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각이미지의 상황에 따른 역할, 그리고 입장과 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의 구체적 이해와 깊이 있는 연구가 본 연구를 시작으로 지속되어져지길 기대하며, 본장의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시각이미지는 단순히 보이는 그대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상징체계, 기호체계라는 시각적 문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서술에서 시각이미지

의 역할은 역사서술의 적극적인 도구와 방법이 된다. 사진, 복원, 극화된 재현, 정보그래픽, 만화 등 역사서술에서 시각이미지의 각각의 기능과 역할은 서술의 단순한 참조기능이 아니라 서술의 입장과 방법에 따라 역사적 사실증명과 내용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문자서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하나의 역사서술이 완결성을 갖으려면 문자서술과 시각서술을 종합하는 편집디자인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자서술과 시각서술의 일관된 관점과 그 관계가 잘 정리된 종합적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마치 역사가의 입장과 사료선택의 과정처럼 편집디자인 역시 서술된 문자와 시각이미지를 해석하여 지면을 구성해야 하며, 전체구성에서부터 한 면 한 면의 세부구성에까지 섬세한 조율을 해야 한다.

셋째, 역사서 편집디자인에 있어서 서술주체의 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의 대표적 두 유형으로 실증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과 입장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이 있다. 실증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의 특징은 논리적 전개방식을 지향하며, 시각이미지는 사실(fact) 사진자료와 사실적 복원 및 재현을 바탕으로 구성 전개된다. 반면 입장해석에 따른 편집디자인은 서술주체의 현재적 해석에 더 비중을 두고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현재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시각이미지 역시 역사적 사진자료와 당대의 사실적 복원 보다는 기호적 재현에 비중을 둔 시각서술로 이뤄진다.

이상 역사서술에서 시각이미지의 역할과 편집디자인은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 기대되며,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1997
- 김현식, 『포스트모던 시대의 역사란 무엇인가』, 휴머니스트, 2006
- 테사 모리스 스즈키, 『우리 안의 과거』, 휴머니스트, 2006
- 신항식, 『디자인 이해의 기초이론』, 나남출판, 2005
- 한국생활사박물관편찬위원회, 『한국생활사박물관』, 사계절, 2000-2004
- 테마한국사편찬위원회, 『테마한국사』, 한솔교육, 2004
-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세계사교과서』, 휴머니스트, 2005
- Hayden White, 『The Modernist Event』, 1996.
- 『Peoples and Places of the Past』, The National Geographic Society, 1983
- 『Cro-Magnon & Nous』, Mango Jeunesse, 2000
- 『Beethoven & Son Temps』, Mango Jeunesse, 2000
- 『The Times History of The World』, Times Books, 1999

17) 『테마한국사14-북방민족과의 전쟁과 외교』, 한솔교육, 2004

18) 『한국생활사박물관08-고려생활관』, 사계절, 2003